

석사학위논문

문법적 차이에 따른 영한번역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박 준 석

2002년 6월

문법적 차이에 따른 영한번역

지도교수 김 원 보

박 준 석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6월



박 준 석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02년 6월

Translation of English into Korean Based on Grammatical differences

Joon-seok Park

(Supervised by Prof. Won-bo Kim)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une 2002

목 차

ABSTRACT

I. 서론

II. 문법범주별 분석

2.1 태

2.1.1 국어의 태

2.1.2 영어의 태

2.1.3 태의 번역의 문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2 수

2.2.1 국어의 단수와 복수

2.2.2 영어의 단수와 복수

2.2.3 단수와 복수의 번역의 문제

2.3 대명사

2.3.1 국어의 대명사

2.3.2 영어의 대명사

2.3.3 대명사의 번역의 문제

2.4 국어의 조사와 영어의 관사

2.4.1 국어의 조사

2.4.2 영어의 관사

2.4.3 관사번역의 문제

Ⅲ. 번역의 실패

Ⅳ. 결론

V. 참고문헌



ABSTRACT

There are so many obstacles to translating English into Korean. This is because cultural and grammatical differences exist between the two languages. It takes much time and efforts to master cultural differences, while it takes less time and efforts to master grammatical ones comparatively. Therefore, in this paper, I'd like to focus on the grammatical category and analyze the problems derived from such differences. Translation is a process during which *meaning to meaning*, not *word for word*, method is very important.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this aspect be despised. This is the golden rule by which all translators live.



I. 서론

어떤 번역이 좋은 번역일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적어도 해박한 외국어 실력을 우선 생각하게 된다. 물론 번역을 하는데 있어서 외국어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외국어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우리말로 표현해야하는 과정까지도 포함된다. 번역을 제2의 창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번역은 오히려 우리말로 표현하는 과정에 많은 비중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번역을 하려면 외국어는 물론이려니와 우리말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영한 번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어와 국어 양쪽을 모두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면, 여기서 비롯되는 문제는 영어와 국어의 문법의 차이와 문화적 배경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문화적 배경차이로 인한 문제는 번역자 자신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두 언어의 문화를 깊이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문법 구조 차이로 인한 문제들은 언어 구조에 대한 안목만 연마한다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어에서 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번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문법적 오류의 범주는 태와 단수와 복수 그리고 대명사와 영어의 관사를 국어의 조사로 옮기는 과정이다. 이를 문법범주별로 나누어 각 언어에서의 문법사항을 정리한 후 양자를 비교 분석하여 번역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문법범주별 분석을 실제 번역에 적용하여 보았다.

번역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단어 대 단어의 일대일 번역 방식이다. 하나의 단어가 가질 수 있는 의미는 문맥에 따라 수십 가지일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한다면 일대일 번역방식은 매우 위험한 방법인 것

이다. 특히, 영어를 국어로 번역할 때 영어의 문법을 국어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어떠한 문법범주별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더 나은 번역의 길을 지향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II. 문법범주별 분석

2.1 태

태를 번역함에 있어 가장 많은 오류는 수동태의 번역에 있다. 영어의 수동태를 그대로 국어의 피동태로 번역하게 되면 상당히 어색한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be + p.p’가 수동태의 형태이지만 국어의 경우는 수동태를 나타내는 방법이 다양하다. 여기에서 수동태 번역의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다.

2.1.1 국어의 태 - 피동문을 중심으로

국어에도 영어의 경우와 비슷한 피동문이 존재한다. 피동문은 타동사 어간에 피동 접미사인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피동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행동주와 함께 ‘에게’나 ‘한테’가 있다.

- (1) 장미가 아이들한테 밟혔다.
- (2) 아기가 별에 쏘였다.
- (3) 이번에 회장이 갈렸다.

이밖에도 국어에는 ‘-아/어지다’ 구성에 의한 통사적 피동법도 존재한다.

- (4) 바람에 낙엽이 떨어진다.

2.1.2 영어의 태

영어에는 두 가지 태가 존재한다. 능동태는 주어가 무엇인가를 행하거나 무언가 됨을 나타낸다.

(5) Jane makes good food.

(6) Tom is becoming tired.

수동태는 행위의 대상이 된 주어를 나타낸다. 그리고 타동사만이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수동태는 일반적으로 be를 타동사의 과거분사에 붙여서 만드는데, 현재형 수동태일 경우에 구어에서는 be 대신에 get, become 등을 쓰기도 한다.

(7) The fence is painted every year.

(8) John was punished for breaking the window.

(9) His house gets painted every year.

(10) He became seized with a profound melancholy.

2.1.3 태 번역의 문제(수동태를 중심으로)

영어의 타동사 구문은 능동태와 수동태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화자의 관심의 초점에 따라 능동태와 수동태가 적절히 선택된다. 능동의 주어가 불분명하거나 반대로 너무나 분명할 때 그리고 능동의 주어보다도 수동의 주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에는 수동태를 선택하는 것이다. 한편 국어의 피동은 피동화할 수 있는 피동사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있다. 무엇보다도 동사화 접미사 ‘-하다’가 붙은 타동사는 피동형을 취할 수가 없다. 또한 ‘주다’, ‘받다’와 같은 수여 동사나 ‘얻다’, ‘찾다’와 같은 수혜동사도 피동사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알다’, ‘배우다’ 와 같은 경험 동사나 ‘만나다’, ‘답다’ 와 같은 대칭동사도 피동형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어에 비해서 국어의 피동형은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영어의 수동태 중에서 상당수는 국어에서 단순히 피동접사를 붙여서는 원하는 피동사를 만들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동사를 바꾸어 주든지 능동문으로 전환시키든지 해야 한다. 특히, 어간을 무리하게 변형시켜 번역하지 말아야 한다. (11)과 같은 번역을 하면 어색하다.

(11) His story is seldom told by my own telling.

(11a) 그의 이야기가 그 스스로의 입으로 말해진 일은 거의 없다.

(11b) 그가 스스로 그의 이야기를 말한 일은 거의 없다.

(11c) 그의 입을 통해서 직접 그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거의 없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어의 피동문에는 ‘한테’ 와 ‘에게’ 가 행위자에 붙어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형태이므로 ‘-에 의하여’ 식으로 행위자를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2) The man was caught by a citizen.

(12a) 그 사람은 한 시민에 의하여 붙잡혔다.

(12b) 그 사람은 한 시민한테 붙잡혔다.

실제로 ‘follow’, ‘precede’ 등의 타동사가 있는 수동태 구문을 ‘-에 의하여’ 식으로 직역하게 되면 읽는 이가 그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13) The destruction of machinery was preceded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13') 기계 파괴는 산업혁명에 의하여 선행되었다.

이 밖에도 이중피동 형태인 ‘되어지다’의 번역도 유의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실제 번역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영어의 수동태가 가진 특성도 살리면서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4) Having been condemned by Nature and Fortune to an active and restless Life; in two Months after my Return, I
.....

(14a) 잠시도 쉬지 말고 몸을 움직이도록 자연과 운명에 의해 선고를
- 받아 온 나는 돌아온 지 두 달도 채 못 되어서

(14b) 잠시도 쉬지 말고 몸을 움직이도록 자연과 운명의 여신이 쳐 놓
은 덫에 걸린 나는 돌아온 지 두 달도 채 못 되어서

(14a)보다도 (14b)의 번역이 훨씬 자연스러운 우리말 번역이 된다. 특히, 수동태를 번역하는데 있어서는 단어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문장 전체의 의미가 자연스러워 질 수 있다면 약간의 의역도 필요한 것이다.

2.2 수

영어는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뚜렷한데 비해 국어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영어의 복수를 번역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어에서는 단수형태로도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를 그대로 복수로 번역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논리적으로 의미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어와 영어의 수의 개념을 확인한 후 구체적으로 번역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2.2.1 국어의 단수와 복수

국어는 영어처럼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일정한 수 표현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국어에서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는 ‘-들’, ‘-회’, ‘-네’ 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네’ 는 복수를 표현한다기보다는 무리나 집을 의미하는 접미사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머지 두 가지 복수 접미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국어의 복수는 명사와 대명사에만 표시되고 수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1) 사람들이 너나 없이 주식 투자에 열중이다.

(2) * 초등학교 친구 다섯들을 만났다.

물론 이와 같은 복수표현은 해당 체언이 셀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물질을 나타내는 명사에는 복수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예문 (3)과 (4)에서 이러한 수 표현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3) * 여럿 셋강의 물들이 합쳐져서 커다란 한강을 이루게 된다.

(4) * 우리나라는 어디든 공기들이 맑다.

한편 대명사는 복수표현이 대단히 규칙적이라 할 수 있다.

(5a) 나: 우리(들), 저 : 저회(들)

(5b) 너: 너희(들)

(5c) 그: 그들

(5)를 보면 복수 표시 접미사가 첨가된 다음에도 이 형태에 다시 ‘-들’이 첨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들’은 셀 수 있는 명사와 대명사에 붙어서 복수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성분에 자유롭게 붙어서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문 (6)을 살펴보자.

(6a) 왜들 그러니?

(6b) 조용히들 해라?

(6)에서 ‘들’이 체언이 아닌 부사어에 붙어서 명령의 대상이 2인칭 복수임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2 영어의 단수와 복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영어에서는 주어의 수와 동사의 활용어미가 일치하지 않으면 틀린 문장이 될 정도로 수의 구분이 철저하다. 곧 주어의 수에 따라서 문장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수의 변화가 가져오는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7a) That is a bug.

(7b) Those are bugs.

보어로 쓰인 벌레가 (7a)의 단수에서 (7b)의 복수로 바뀌면서 바로 앞에 있던 부정관사가 탈락하고 대명사의 동사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 결국 영어에서는 수의 표시가 문장의 맞고 틀림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법적 요소이다.

2.2.3 단수와 복수의 번역의 문제

영어에서는 단수와 복수의 굴절이 의무적이고 또한 이러한 수의 표시가 동사와 관사 등 문장의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비해서 국어에서는 수의 표현이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복수형의 표시가 오히려 특수한 현상으로 간주될 정도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의 표현에 있어서 영어는 국어에 비해서 철저하고 규칙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어를 국어로 번역할 때는 단수와 복수의 구분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단수 표현만 써도 무방하며, 때로는 복수표현을 쓰지 말아야 자연스러운 번역이 된다.

(8) 뒷산 너머로 해가 지자, 밤하늘에 별들이 뜨기 시작했다.

(9)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밤하늘에 뜨는 별은 물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만 아마도 국어를 사용하는 우리 나라 사람이라면 위의 밑줄 친 부분에서 복수를 표시하는 것이 없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워 보일 것이다. 반면에 예문 (9)을 보는 독자들은 이 시집의 제목을 읽으면서 밑줄 친 부분에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히 많은 별을 머리에 떠올릴 것이다. 그러므로 영어를 국어로 번역할 때 국어에서는 오히려 복수 표현을 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국어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다는 일반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 번역을 하다 보면 복수 표현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9) They descended between the houses with slate roofs and blackish brick walls.

(9a) 그들은 슬레이트 지붕에 까만 벽돌 벽으로 된 집 사이로 내려갔다.

(9b) 처녀들은 슬레이트 지붕에 까만 벽돌 벽으로 된 가옥들 사이로 내려갔다.

(9a)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원문의 복수 표현이 무시된 채 그냥 단수로 번역되어 있다. 앞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여기서 복수 표시 접미사를 첨가하지 않은 번역이 별로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문장임을 알 수 있다. 집의 벽을 불도저 같은 기계로 뚫고 그 사이로 걸어 내려가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기에 복수 표현이 번역문에도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한다.

한편 국어의 복수 표시가 반드시 접미사만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장의 다른 요소, 예를 들면, 부사, 특수 조사 등을 써서 복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소설에서 어떤 주인공이 열 손가락 모두에 반지를 하나씩 끼고 있는 장면을 국어로 표현해 본다고 하자.

- (10a) 손가락들에 반지를 모두 끼고 있다.
- (10b) 손가락에 반지들을 끼고 있다.
- (10c) 손가락들에 반지들을 끼고 있다.
- (10d)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고 있다.
- (10e) 손가락마다 반지들을 끼고 있다.
- (10f) 열 손가락 하나 하나에 줄줄이 반지를 끼고 있다.
- (10g) 손가락이라는 손가락에는 모두 줄줄이 반지를 끼고 있다.

일곱 개 예문 가운데 넷째와 일곱째 정도가 원문의 의미도 제대로 전하고 국어로서 어색하지 않게 보인다. 그러니까 국어의 복수 표시는 반드시 접미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나 특수조사 등 다른 요소에도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은 복수나 단수의 대립을 통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번역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반영해 주어야 할 것이다.

(11) The moon was just coming over the hills, caught in a long cloud, giving her a fantastic shape. She was huge, dwarfing the hills, the earth, and the green pastures; where she was coming up was more clear, fewer clouds, but she soon disappeared in a dark rain-bearing clouds. It began to drizzle and the earth was glad; it doesn't rain much here and every drop counts. The big banyan and the tamarind and the mang would struggle through, but the little plants and the rice crop were rejoicing at even a little rain. Unfortunately even the few drops stopped and presently the moon shone in a clear sky. It was raining furiously on the coast, but here where the rain was needed, the rain-bearing clouds passed away. It was a beautiful evening, and there were deep dark shadows of many patterns. The moon was very bright and the shadows were very still and the leaves, washed clean, were sparkling.

『On Nature and Environment』 by J. Krisnamuri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1행의 밑줄 그은 ‘a long cloud’의 번역이다. 단수를 표시하는 부정 관사 ‘a’에 유의하여 그 아래에 나오는 ‘fewer clouds’나 ‘in dark rain-bearing clouds’의 복수 표현과 대립되는 원문의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1a)보다 (11b)가 이러한 효과를 제대로 살리고 있다고 하겠다.

(11a) 달은 뱀같이 생긴 길다란 구름에 걸린 채 그 황홀한 자태를 드러내며 언덕 위로 막 떠오르고 있었다.

(11b) 달이 언덕 너머로 막 떠오르고 있었다. 뱀처럼 기다랗게 생긴 한 조
각 구름에 걸려서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2.3 대명사

영어에서는 대명사의 사용이 빈번하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대명사의 사용이 되도록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He’ 나 ‘She’ 를 그대로 ‘그’ 나 ‘그녀’ 로 번역하게 되면 국어답지 못한 느낌이 들게 된다. 특히, 원서를 번역하는 경우 독자들이 번역문임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명사를 그대로 대명사로 번역해 버리는 경우인 것이다. 영어와 국어의 대명사를 살펴본 후 인칭대명사의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상의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2.3.1 국어의 대명사

국어의 대명사에는 인칭대명사, 사물 대명사, 처소 대명사, 재귀 대명사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3인칭 대명사와 재귀대명사에 대해서만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우선 국어의 3인칭 대명사는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것으로 3인칭의 경우에는 선행 명사를 대신하는 기능이 제한적이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1) 저희 어머님은 올해 마흔 두 살이십니다. 어머님의 고향은 강원도의 한 소읍이십니다. 어머님은 아홉 살 때까지만 거기서 사시고 그 이후에는 줄곧 서울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1)에서 둘째와 셋째 밑줄 그은 부분을 인칭대명사 ‘그녀’로 바꾸면 국어답

지 못한 어색한 문장이 되고 만다. 이 점은 영어의 인칭대명사 용법과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진 차이이다. 영어의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인칭대명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어의 3인칭 대명사는 문어에서만 사용되고 그것도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

국어의 재귀대명사도 근본적으로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선행하는 명사나 대명사를 다시 받을 때 일반대명사와 구분되는 특별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다음 예문에서 둘 다 선행 대명사나 명사를 받고 있지만 (1a)는 재귀대명사라 하지 않고 (1b)만을 통상 재귀대명사라 한다.

- (1a) 나는 내 이름자도 못 쓴다.
- (1b) 철수는 자기 반에서 일등만 한다.

국어의 재귀대명사에는 ‘저’, ‘자기’, ‘당신’ 및 복수형인 ‘저희’가 있다. 이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용법을 갖는다.

- (2.a) 중도 제 머리는 못 깎는다.
- (2.b) 중도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

(2)의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저가 자기보다 선행사를 더 낮추어 가리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3)에서 보듯이 선행 명사가 존칭성을 갖는 명사라야 한다.

- (3) 아버님은 오늘 종일 당신 방에만 계세요.

재귀대명사를 쓸 자리에 일반 대명사를 쓰면 더 객관적인 서술이 된다. 이러한 용법은 영어 등 외국어를 국어로 옮긴 번역문에서 온 영향으로 보인다

(4a) 김 박사는 그의 서재를 무척 아낀다.

(4b) 김 박사는 자기의 서재를 무척 아낀다.

2.3.2 영어의 대명사

a. 인칭대명사

영어의 인칭대명사 체계는 1인칭과 2인칭, 3인칭 각각에 대하여 단수와 복수형태가 있다. 인칭대명사는 선행 명사 대신에 사용된다.

b. 재귀대명사

재귀대명사는 자신이 나타나는 문장의 주어를 지시하는데, 행위자의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감을 나타낸다. 즉, 문장에서 동일한 행위자가 두 가지 성분에 쓰이는 것이다.

c. 부정대명사

막연하거나 일반적인 인상을 전달하고자 할 때 명사 대신 부정대명사를 사용하게 된다. 이 부정 대명사는 기원적으로 명사로부터 발달했으며, 관사나 수식 형용사를 그 앞에 쓸 수 없다.

d.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일차적으로 선행 명사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대명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종속절을 주절에 연결하는 접속사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한다. 그 의미가 막연하거나 너무 일반적이어서 특정한 선행사를 갖지 않는 관계대명사도 있다.

e. 의문대명사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어서 답변을 기대하면서 사용하는 일종의 부정대명사를 의문대명사라 한다.

2.3.3 대명사의 번역의 문제(인칭대명사 번역)

영어와 국어의 인칭대명사 및 재귀대명사는 그 용법이 상당히 다르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명사화 자체가 영어에 비해 국어는 덜 의무적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3인칭 대명사의 경우에 이러한 차이는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영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인칭대명사는 상당부분 명사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다음 (5)는 영어의 번역문이다. 여기서 밑줄 그은 부분을 일반 명사로 바꾸어 주면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 것이다.

(5) 그가 그녀를 그녀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른 적은 없었다.

(5a) 까치가 업지를 업지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른 적은 없었다.

비단 3인칭뿐만 아니라 1, 2인칭대명사도 대화문에서 흔히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예컨대 복잡한 거리를 지나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서로 인사말을 건넨다고 하자. 다음 (6)의 두 예문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자연스러운지 금방 판단이 설 것이다.

(6a) 너 어디 가니? 응, 나 집에 가.

(6b) 어디 가니? 응, 집에 가.

(7a) Now, he heard of a woman who had cried for him.

(7a) 그는 이제 그를 위해 울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7b)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해 울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국어 번역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재귀대명사 자기 또는 자신으로 바꾸어 놓은 (7b)를 읽어보자. 그러면 느낌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밑줄 친 그는 분명히 문장의 전체 주어 그와 동일한 인물인데, 위의 번역문에서는 상당한 거리감이 느껴진다. 이에 비해서 그를 자기로 바꾸어 보면 전체 주어 그와 바로 연결이 된다. 결국 영어에서는 재귀대명사가 아닌 인칭대명사로 나타나 있어도, 국어로 옮길 때는 경우에 따라서 재귀대명사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것은 물론 양쪽 언어에서 재귀대명사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다. 영어의 재귀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절(clause)의 경계에 묶여서 절을 넘을 수 없는데 비해서 국어의 재귀대명사는 절의 경계를 뛰어넘어 심지어는 문장이나 담화의 차원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국 예문 (7)에서 살펴본 문제는 이처럼 양쪽 언어에서 재귀대명사가 세력을 미치는 범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어의 재귀대명사 범위보다 국어의 재귀대명사 범위가 넓으므로, 위의 예문처럼 영어에서 인칭대명사로 표현되었던 것이 국어로 넘어오면서 재귀대명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2.4 국어의 조사와 영어의 관사

영어에서의 관사는 국어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문법범주인 조사로 번역된다. 특히 관사 번역의 문제는 국어조사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까닭에 많은 번역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하다. 심도 있는 연구는 다음 논문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 논문에서는 관사 번역의 많은 문

제점들 가운데서 영어의 부정관사 ‘a’ 와 ‘an’ 과 정관사 ‘the’ 의 번역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해 보기로 하자.

2.4.1 국어의 조사

2.4.1.a 주격 조사

체언의 뒤에 붙어서 해당 체언이 문장의 주어임을 표시해 주는 ‘-이/-가’ 를 주격 조사라 한다. 주격 조사는 준칭 명사 다음에서는 ‘-께’ 로, 단체 명사 다음에 ‘-에서’ 로 교체된다.

(1a) 할머니께서 모자를 손수 짜 주셨어요.

(1b) 이번 시험은 제주중학교에서 이겼다.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격 조사의 기능은 초점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주격 조사의 이러한 기능은 생략형과의 대비에서 확인된다.

(2a) 결국 당신이 와 주셨군요.

(2b) 결국 와 주셨군요.

(2)문장에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이 온 것이 화자에게 중요한 사실이고, 아래의 문장은 안 오지 않고 온 사건이 화자에게 중요한 사건이 되어 있다. 즉 초점이 주어에 놓여있고 아래문장은 서술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다음에 보는 주제 표시 특수 조사 ‘-는’ 의 용법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2.4.1.b 특수조사

문법적 기능보다 의미를 주로 첨가해 주는 조사를 특수 조사라고 한다.

- (3) 철수는 영어도 잘한다.
- (4) 결과는 오직 신만 알고 있다.
- (5) 너마저 나를 버렸구나.
- (6) 너까지 나를 못 믿겠다니 참으로 섭섭하다.
- (7) 동생조차 성적이 좋지 않구나.
- (8)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3)-(8) 다양한 특수 조사의 용법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가운데서 여기서 다루려는 것은 (8)에 나타나 있는 ‘-는(은)’이다. 우선 ‘-는(은)’은 배타와 대조의 의미를 갖고 있다.



- (9) 이 식물이 고산에서는 잘 자란다.

(9)는 이 식물이 다른 데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어떻든 고산에서는 잘 자란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즉 다른 장소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배타와 유사한 용법으로 대조의 기능을 들 수 있다.

- (10) 나는 생물은 좋아했지만 화학은 싫어했다.

(10)에서는 생물과 화학이 대조되어 있다. 이 (10)과 (11)을 비교해 보면 (11)에서는 대조되는 부분이 문맥 안에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배타와 대조는 넓은 의미의 대조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으로 -는(은)은 주제 표시의 기능을 수행한다.

(11) 소나무는 상록수이다.

(12) 철수는 머리가 참 좋은 아이이다.

(11)-(12)의 문장은 (9)-(10)에서 보는 것처럼 대조의 짝을 상정하기가 힘들다. 오히려 그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온당하다. 이 특수 조사에 ‘소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이라든가 ‘철수에 대해서 말하자면’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는(은)’ 이 붙는 명사가 출현하는 위치는 문장의 첫머리가 된다. 여기는 바로 주격조사가 붙는 명사가 출현하는 자리와 동일하다. 양자는 동일한 위치에 출현하지만 그 기능은 서로 판이하다. 양자의 기능 차이를 아래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13) 철수가 반장이다.

(14) 철수는 반장이다.

(13)에서는 관심의 초점이 ‘철수’ 에 놓여 있고 (14)에서는 관심의 초점이 ‘반장이다’에 놓여 있다. 즉 (13)은 ‘다른 사람 아닌 철수’ 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임에 비해서 (14)는 ‘반장이라는 사실’ 이 관심의 대상이다. 결국 양자의 차이는 관심의 초점이 주어에 놓이느냐, 서술어에 놓이느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정보의 신규 여부와도 관련된다. 즉 ‘-는(은)’ 이미 알려진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관여하고 ‘-이/-가’ 는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15)처럼 새로운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낼 때 ‘-는(은)’ 이 쓰이지 못하는 현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5) 옛날 옛날 우리 마을에 한 어부(가/*는) 살았지요.

양자의 이러한 차이로 인해 영어의 관사를 번역할 때 이에 유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4.2 영어의 관사

2.4.2.a 영어의 부정관사

영어의 부정관사는 기원적으로 수사 ‘one’의 축약형이다. 그러므로 부정관사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물이나 행위를 두드러지게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21) an apple, an heir



앞선 시기의 영어에서는 ‘h’가 약하게 발음되었던 관계로 강세를 받는 음절에서 ‘h’ 앞에 부정관사 ‘an’이 선택되었다. 그러나 교육의 혜택을 받은 현대 미국인들은 자음 ‘h’를 분명히 발음하므로 그 앞에 오는 부정관사도 규칙적으로 ‘a’를 선택하고 있다. 부정 관사의 용법은 다음과 같다.

ㄱ. 불특정한 개별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킨다.

(22a) We met an old man on our way home.

(22b) There is a book lying on the table.

ㄴ. 정관사와 마찬가지로 일반화의 힘을 갖는다.

(23) A bee leads a kind of social life.

ㄷ. 한정하는 요소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때는 ‘such’의 의미를 갖는다.

(24) It was a sight that would make angels rejoice. (… 할 그런 광경)

ㄹ. 원래의 의미인 하나(1)를 나타낸다.

(25) a foot long (= one foot long)

ㅁ.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전치사 ‘per’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26) He goes to the city several times a year.

ㄴ. 가족의 구성원을 나타내거나 보통명사로 전성될 때 고유명사 앞에 올 수 있다.

(27a) There isn't a single Jones in our village although it once seemed full of them.

(27b) He is a regular Hercules.

2.4.2.b 영어의 정관사

정관사는 기원적으로 현재 that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구형 지시형용사가 약화된 형태이다. 그 용법은 다음과 같다.

ㄱ. 조응(anaphoric)

앞에서 이미 언급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16) There lived once in this old castle a powerful king.

The king had a lovely daughter.

ㄴ. 한정(determinative)

뒤따르는 소유격, 부사, 전치사 구, 관계사절이 기술하는 정해진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17) The hat of my brother is blue.

그런데 이 한정 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정관사 다음에 오는 명사는 흔히 수식어를 갖지 않는다. 이것은 해당되는 명사가 종류상 유일한 관계로 더이상의 수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18) the King, the Alps, the Hudson

정관사는 흔히 일반화, 즉 하나의 개체가 소속 부류 전체를 대표하는 힘을 갖는다.

(19a) The rat is larger than the mouse.

(19b) He is a lover of the beautiful.

고유명사 앞의 정관사는 해당 고유명사에 보통명사의 성격을 부여한다.

(20) He is the Shakespeare of our time.

2.4.3 관사번역의 문제

앞서 살펴본 대로 국어의 조사 ‘-이/-가’와 ‘-은/-는’은 영어의 관사용법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국어에서는 양자는 출현하는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흔히 사람들은 그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국어의 화자는 언어 생활에서 구어체라면 별 어려움이 없이 양자를 적절하게 구분해서 의사 소통을 한다. 그런데 문어체라면 사정은 사뭇 달라진다.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번역의 영역에 들어가면 더욱 심각해진다. 다음 예문을 통해서 용법의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제의 번역문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음의 예문에서 짝을 비교해 보면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28)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boy on the seaside.

(28a) 옛날 옛적에 한 소년이 바닷가에 살고 있었다.

(28b) * 옛날 옛적에 한 소년은 바닷가에 살고 있었다.

(29) The boy was married to a beautiful girl.

(29a) * 소년이 아름다운 소녀와 결혼을 했다.

(29b) 소년은 아름다운 소녀와 결혼을 했다.

(28)에서는 문장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표현이므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이/-가’가 쓰여야 한다. 따라서 (28b)가 틀린 문장이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원문의 부정관사에 나타나 있다. 부정관사와 주격 조사가 대응된 경우다. (29)

는 이와는 반대로 ‘the boy’ 는 구정보이므로 이미 알려져 이미 정보를 재진술 하는 ‘-은/-는’ 이 쓰여야 하는 것이다.

Ⅲ. 번역의 실례

지금까지 살펴본 문법범주 분석들을 중심으로 E. Hemingway 의 소설 『The Snows of Kilimanjaro』의 도입부분을 번역해 보았는데 첫 번째 번역문은 기존의 번역이며 두 번째 번역은 이 논문에서 검토해본 문법범주별 분석 방법에 의한 번역으로 두 번역문의 차이점에 관한 해설도 시도해 보았다.

Kilimanjaro is a snow-covered mountain 19,710 feet high, and is said to be the biggest mountain in Africa. Its western summit is called by the Masai "Ngaje Ngai," the House of God. Close to the western summit there is the dried and frozen carcass of a leopard. No one has explained what the leopard was seeking at that altitude.

The marvelous thing is that it's painless, he said. "That's how you know when it starts."

Is it really?"

"Absolutely. I'm awfully sorry about the odor though. That must bother you."

"Look at them," he said. "Now is it sight or is it scent that brings them like that?"

The cot the man lay on was in the wide shade of a mimosa tree and as he looked out past the shade onto the glare of the plain there

were three of the big birds squatted obscenely, while in the sky a dozen more sailed, making quick-moving shadows as they passed.

"They've been there since the day the truck broke down." he said. "Today's the first time any have lit on the ground. I watched the way they sailed very carefully at first in case I have ever wanted to use them in a sorry. That's funny now."

"I wish you wouldn't." she said.

"I'm only talking," he said. "It's much easier if I talk. But I dont want to bother you."

『The Snows of Kilimanjaro』 by E. Hemingway

1. 기존 번역 : 킬리만자로는 높이가 19,710피트 되는 눈으로 덮힌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산의 서쪽 봉우리는 마사이어로 느가예, 느가이 즉, 신의 집이라고 불려진다. 이 봉우리 근처에는 말라 얼어붙은 한 표범의 시체가 있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무엇을 찾아 헤매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고통스럽지 않으니 정말 이상한 일이야.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지.” 사나이가 말했다.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고 말고! 그런데 이런 냄새를 피워서 정말 미안해. 실어할 텐데 말 이야.”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것들 좀 보라구. 저것들이 모여드는 건 내 꼴을 보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냄새를 맡아서일까?”

사나이는 미모사 나무의 넓은 그늘 속에 놓인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 나무 그늘을 통해 그가 눈부시게 반짝이는 평원 쪽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커다란

새 세 마리가 음흉한 꼴을 하고 웅크리고 있었으며, 하늘에는 열두 세 마리 정도가 날아다니며 그때마다 땅 위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남겼다.

“저 녀석들은 트럭이 고장난 날부터 계속 저기에 앉아 있었어.” 그가 말했다. “오늘 처음으로 땅 위에 내려앉은 거야. 소설의 소재가 될 듯해서 처음에는 매우 유심히 그들이 나는 모습을 살펴보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정말 한심한 일이야.”

“소설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말했다.

“그냥 해본 소리야. 지껄이는 게 훨씬 편하니까. 하지만 당신을 성가시게 하려는 것은 아니야.” 그가 말했다.

2. 해설: 처음 네 문장은 소설 전체의 도입부로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을 보여주는 동시에 주제 의식을 암시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한 문장씩 차례대로 검토해보자.

첫째 문장에서는 기존 번역에 나타나는 ‘피트’ 라는 도량형 단위가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라면 당연히 ‘미터’ 계 단위를 써야 할 것이다. 만일 독자들이 ‘피트’ 라는 단위를 보고 다시 사전을 찾아서 미터계 단위로 바꿔서 이해한다면, 이는 당연히 완전한 번역이라고 하기 힘들다. 예컨대 6,500 피트 높이의 산이라고 하면 우리 나라 독자들은 얼른 감이 와 닿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1,950미터 높이의 산이라고 하면 금방 어느 정도의 높이인지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한편 동사 ‘덮다’의 피동형은 ‘덮히다’ 가 아닌 ‘덮이다’ 로 써야 한다.

둘째 문장에서는 ‘the Masai’ 의 번역이 관건이다, 우선 ‘마사이어’ 나 ‘마사이족’ 으로 하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언어를 지칭할 때 정관사가 붙으면 다음에 ‘language’ 를 쓰는 것이 관례지만, 그렇지 않은 예도 있으므로 그것만 가지고 이 표현이 언어를 지칭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맥상으로 볼 때 언어

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아도 무난하기 때문이다. 다만 ‘마시이어’ 보다는 ‘마시이말’ 정도의 번역이 어떨까 싶다. 그리고 ‘-어(語)’ 라는 단어는 상당히 큰 언어 집단의 사용을 전체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단위가 적은 ‘지역어’ 나 ‘부족어’ 를 가리키므로 ‘말’ 이라는 단어를 택하려는 것이다. 한편 ‘부르다’ 의 피동형을 ‘불러지다’ 나 ‘불리어지다’ 식의 중복형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단어처럼 많이 쓰이는 단어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법을 익혀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장에서는 정관사의 처리 정도가 문제이다. 원문 ‘the dried and frozen carcass of a leopard’ 의 맨 앞부분 정관사가 번역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전개된 이야기를 보면 먼저 킬리만자로산의 대략적인 윤곽을 소개하고 나서 서쪽 정상으로 독자의 시선을 이용시키고 있다. 그리고 셋째 문장에 이르러 서쪽 정상 부근에 있는 한 마리 표범의 시체로 초점을 집중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줌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서 원경(킬리만자로의 웅대한 윤곽)에서 근경(서쪽 정상)으로 시점을 옮기면서 표범의 시체를 두드러지게 클로즈업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 정관사는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old information)를 지칭하는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다섯째 문장에서는 대명사 ‘it’의 정확한 의미 파악이 관건이다. 이 대명사의 번역이 정확하지 않으면 전체 문장이 의미가 모호해 지고 만다. 위 기존 번역에서 ‘죽음’ 대신 ‘그것’을 넣고 음미해보면 알 수 있다. 다음 문맥을 참조해보면 현재 이 인물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처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화문의 두 문장에 등장하는 두 번의 비인칭 ‘it’ 은 기존번역문에서처럼 ‘죽음’ 또는 ‘죽음에 이르는 단초’ 정도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아주 생략하는 것도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가능하리라고 본다.

3. 새로운 번역 : 킬리만자로는 높이 5,923미터인 눈 덮인 산으로 아프리카

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한다. 산의 서쪽 정상은 마사이말로 ‘응가예 응가이’, 즉 ‘신의 짐’ 이라고 불린다. 서쪽 정상 가까이에 마르고 얼어붙은 바로 그 한 마리 표범의 시체가 있다. 그 녀석이 도대체 그렇게 놓은 곳까지 가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고통이 없으니 신기한 일이야. 그렇게 해서(고통이 사라지는 느낌을 통해서)시작되는 때를 알게 되지.” 남자가 말했다.

“그럼, 전혀! 한데 냄새는 굉장히 미안해. 아주 역할 텐데 말이야.”

“저 녀석들을 좀 봐. 내 꼴을 보고 모여드는 걸까, 아니면 냄새를 맡고 모여드는 걸까?” 남자가 말했다.

남자가 누워 있는 간이침대는 미모사 나무가 드리운 널따란 그늘 속에 놓여 있었으며, 그늘 너머 이글거리는 평원으로 눈길을 던지니 커다란 새 세 놈이서 음란하게 웅크리고 있는가 하면 하늘 위로는 여남은 놈들이 날아 다니면서 재빨리 변하는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저 놈들은 트럭이 고장난 그 날부터 줄곧 저기 저러고 있어. 땅에 내려앉은건 오늘이 처음이야. 처음에는 혹시라도 이야기에 썩먹고 싶어질 때가 있을까 싶어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지. 지금은 뭐 다 웃기는 얘이야.”

“너무 그렇게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 보는 소리야. 말이라도 하면 훨씬 편해지거든. 하지만 성가시게 하고 싶지 않아.”

IV. 결 론

지금까지 문법을 중심으로 태, 대명사와 단수와 복수, 국어의 조사와 영어의 관사를 중심으로 번역시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어차피 언어란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영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번역가는 이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국어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영어에 해박한 지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번역과정에 수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번역이란 독자를 위한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언어지식을 갖추고 있고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독자를 염두에 두지 않은 번역은 처음부터 그 출발이 잘못된 헛된 시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텍스트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결국 그러한 텍스트를 번역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번역을 독자를 위한 것이며 독자가 없이 번역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독자에게 알맞은 번역과 철저한 텍스트 연구를 양 축으로 해서 그 안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문법구조차이를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지식습득을 겸비한다면 일단은 번역의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번역에 수반되는 문제를 몇 가지 문법사항만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으나 그것은 번역이라는 목적지까지 가는 망망대해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문법구조차이에 대한 지식은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른 것들보다도 비교적 수월하게 습득할 수가 있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번역의 첫 단계로서 앞으로도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반역자(traitor)가 아닌 번역가(translator)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인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고된 훈련과 철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I. 국내 문헌

- 김정우. 「영어를 우리말처럼 우리말을 영어처럼」. 창문사, 1996.
- 김종길 외.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민음사, 2000.
- 이근달, 「영문 번역의 노하우」, 서울: 시사영어사, 1998.
- 이기문, 「번역의 길잡이」, 서울: 백산출판사, 2001.
- 안정효. 「가짜영어사전」. 현암사, 2000.
- 안정효. 「번역의 테크닉」. 현암사, 1996.
- 유영난. 「번역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1995.
- 전국국어교사모임 편, 「우리말 우리글」, 서울: 나라말, 2001.
- Bassnett, Susan 저 · 엄재호 역, 「번역학 개론」, 서울: 인간사랑, 1999.
- Lederer, Marianne 저 · 전성기 역, 「번역의 오늘: 해석이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 Werner Koller 저, 이희재 역.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0

II. 국외 문헌

- Robinson, Douglas. *Becoming a Translator: an accelerated cours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 Schaffner, Christina, ed. *Translation and Quality*.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8.
- Hatim, Basil and Mason, Ian. *The Translator as Communicato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7.
- Hickey, Leo, ed. *The Pragmatics of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8.

감사의 글

지난 2년 간 통역대학원을 다닌 마지막 결과물인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를 정리하면서 감회가 새롭다. 입학 후 많은 기대와 포부를 안고서 첫 수업을 받을 때의 긴장감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첫 몇 달 동안 우리 1기생 모두 부담스런 과제와 긴장의 연속으로 얼굴은 수척했었고 그렇게 첫 학기가 지나갔다. 물론 많은 시행착오의 연속이긴 했지만 내 인생에 있어 다시는 누리기 힘든 경험과 희열의 시기였다.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가르침으로 통역과 번역이 무엇인지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 통역대학원 초창기 멤버들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도 나름대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은 논문이지만 첫 논문인 만큼 애착도 많이 갖게 되었고 부족한 부분을 다음 논문에서 반드시 채워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 지난 2년 간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 드리며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많이 걱정해 주신 부모님께 이 보잘것없는 논문을 드리고 싶고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아무 말 없이 잘 참고 묵묵히 지켜봐 준 내 아내 윤경이와 내 아들 하운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